육군훈련소 법당 내년 2월 완공

군종교구장 자광스님, 기자간담회서 밝혀

"사부대중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 당부

군불교의 숙원인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이 내년 2월 완공될 전망이다.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은 지난 6일 국방부 법당 호국원광사에서 교계 기자간담회를 열어 불사진행경과를 소개하고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한 사부대중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군종교구장 자광스님은 "시공사를 국내 도급순위 3위인 GS건설로 선정하고 지난 3월31일 기초공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2012년 2월이면 새로운 법당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사의 순조로운 마무리를 위해 불자들의 정성어린 보시가 절실하다"며 "10만 명 동참운동, ARS 모금 확대 불자 기업인 후원 등 다각적인 모연운동을 전개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들어설 법당은 건축면적 5160㎡(1560평) 지상 1층의 단층 건물로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현대식 시설이다. 지은 지 30년 된 기존의 좁고 노후한 법당을 대체해 훈련병들의 신행여건을 크게 개선하고 군내 불교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이명일 군종교구 불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불사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신축불사 발대식 이후 군종교구는 12차례에 걸친 건축회의 끝에 GS건설을 시공업체로 최종 낙점했다. 총 공사비는 105억 30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지난 3월31일 실질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설계는 금성종합건축이 맡았으며 법당은 시선 확보가 용이한 극장식 구도로 만들어진다. 높이 7m의 삼존불을 봉안할 예정이며 각종 영상 및 음향장비와 함께 법회준비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도 갖추게 된다.

한편 3월31일 현재 군종교구가 불교신문 등을 통해 모연한 불사금 총액은 총55억9380만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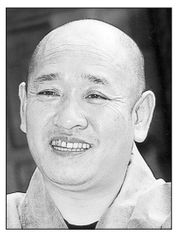
교구장 자광스님은 "심각한 여성화 노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불교의 문제점을 타개할 대안이 군포교 활성화"라며 불자장병의 비약적인 증가를 주도할 신축법당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교구장 스님은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군포교"라며 "타종교 역시 이러한 중요성을 오래 전에 인식하고 모든 포교역량을 육군훈련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불자의 대거 양성을 통한 불교중흥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자들의 성원을 거듭 당부했다. 이밖에 군종교구는 간담회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수계장병이 연 10만 명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더욱 정진하겠다며 계급별 맞춤형 포교, 군승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스님 문화사업단장 지현스님 임명

정만스님


지현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에 정만스님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지현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한 기획실장 원담스님의 후임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정만스님을 임명했다. 또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스님을 임명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두 스님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신속히 업무를 파악해 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기획실장 정만스님은 "갑작스런 임명이라 무엇부터 해 나가야 할 지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동안 총무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과 협의하며 소임에 임하겠다"면서 "종단의 최대 현안사업인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가 원만히 완수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지현스님은 "자동차에 4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듯 불교에는 수행과 포교, 복지, 문화라는 4가지 중요사업이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불교문화를 알리는 불교문화사업단은 불교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하나씩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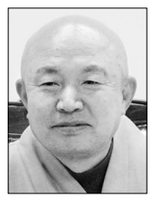
1977년 벽파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정만스님은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재무부장, 호법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14교구본사 범어사 부주지와 금강암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1971년 법종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지현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봉화 청량사 주지와 12~15대 중앙종회의원, 포교원 신도종책위원장,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박인탁 기자

법규위원장에 무상스님 선출

6일, 제71차 회의



조계종 법규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무상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법규위원회는 지난 6일 제71차 회의를 열고 신임 위원장에 하남 광덕사 주지 무상스님을, 간사에 달성 용연사 회주 허운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신임 법규위원장 무상스님은 "지난 2년간 법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적지 않게 들었다"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위원 스님들을 잘 시봉하며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인탁 기자

"평화와 기쁨이 함께 하길…"

교황청 봉축메시지 발표

가톨릭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가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 날을 축하하는 경축메시지를 발표했다.

가톨릭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장 루이 토랑 추기경은 지난 7일 '자유 안에서 진리를 찾으며 그리스도인과 불자는 평화로이 살아갑니다'라는 제목의 경축메시지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이라는 축제를 맞이하여 평화와 기쁨이 전 세계의 불자 여러분과 함께 하길 빈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장 루이 추기경은 이어 "현대 세계는 진정한 자유와 영적인 가치에 적대적인 세속주의와 근본주의가 팽배해 있다"면서 "종교간 대화는 모든 이의 공동선을 위해 함께 일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황금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종교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처님오신날이 새롭게 진리와 선을 찾고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모든 이와 화합해 더불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자"고 밝혔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현장에서 갈등의 불을 끄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북녘에 남북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에 설치되던 장엄등.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휴전선에서 상호 심리전을 중단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국방부는 주요 종교계에 종교시설물 설치 자제를 요청하고 조계종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반발 심리로, 개신교계가 중단 6년만인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다시 애기봉에 설치하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개신교계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북측은 '조준격파하겠다' 고 엄포를 놓았고 남북관계는 더욱 긴장일로로 치달았다.

특히 이번엔 군이 대북 심리전에 불교를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봉축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 조계종 군종교구에 따르면 국방부 군종과에서 봉축등 설치를 협의했던 예전과 달리, 금년엔 합동참모본부에서 군종교구에 애기봉 봉축등 설치를 먼저 제안했다.

종단은 올해 역시 남북대치 국면의 해소를 위해 애기봉에서 점등식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군은 어느 불교계 보수단체의 장엄등 설치를 허락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해당 부대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대한 종단의 불신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파국의 씨앗이 되리란 걱정도 들린다.

물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자유의 현실적인 전제조건은 상대방의 동의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행여 북측이 이를 빌미로 재차 도발해 올 경우 불교계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리는 연등은 자비와 화합을 추구하자는 불자들의 발원을 담은 상징물이다. 오해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에 이용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국가브랜드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가 사찰 등 전통문화자산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하는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국가브랜드위는 지난 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업무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신뢰받고 품격 있는 국가 이미지 구축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찰이나 불교문화유산은 물론 유교 서원 등을 포함한 유무형적 전통적 가치를 스토리텔링화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방송매체 및 스마트폰, SNS를 통해 세계인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통문화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이 불교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당·정·청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팀 관계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계와 관계 개선을 위해 당정청이 함께 불교계의 입장을 경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인탁 · 어현경 기자

종교문화축제 열고 성지도 순례

종지협, 2011년 사업확정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정기총회〈사진〉를 열고 종교문화축제와 이웃종교 성지순례 등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종지협은 지역종교 문화행사와 대한민국 종교문화축제, 종교지도자 성지순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및 환경보호 실천운동 등 주요 사업을 논의하고 예산을 심의했다. 이어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스님을 운영위원장에, 공승관 사회팀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사진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후학지도·학문연구에 매진"

교육원, 교수아사리 위촉식 봉행

승가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할 종단 교수아사리가 위촉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은 지난 8일 동국대 본관 5층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위촉식 및 연찬회를 진행했다. 이날 한문불전,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계율과 불교윤리, 응용불교 등 6개 분야 19명 스님이 교수아사리 중 '교수'로 위촉됐다.

위촉된 교수아사리는 승가교육기관 강의와 교육기관 각종 강의계획 및 교재연구를 담당한다. 또 종단이 준비하고 있는 불교학 세미나에 참여해야 한다. 전공분야 연구논문 1편 이상을 교육원에 매년 제출해야 된다. 논문주제는 개인별 전공분야를 불교계 현황에 접목시켜 현실에 적용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다.

이밖에도 승가교육 개선관련 연구 및 논의 참여, 종단교수아사리 연찬회에 참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종단은 연간 연구비를 지원해주고, 학진에 등재할 연구논문집 발간과 승가교육기관 교수 우선추천의 특전 등을 준다.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불교학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춘 스님들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하기 위해 교수아사리제도를 마련했다"며 "오늘 위촉된 교수아사리 스님들은 각 교육기관에서 후학지도와 학문연구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종단에서는 매년 20명 내외의 교수아사리를 위촉해 지원할 방침"라고 덧붙였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조계종 기본교육기관 학인논문 공모전 안내

논문 주제

- 초기불교 분야
- 대승불교 분야
- 선불교 분야
- 응용불교 분야
- 계율 및 불교윤리 분야
- 불교사 분야
- 기타 전법과 포교에 필요한 이론 분야

참가 자격

승가대학,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기본선원 등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조계종 스님(팀 구성 가능)

심사 기준

창의성, 논리성, 충실성, 완성도 (이미 발표된 논문 및 대학에 제출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응모 요령

- 분 량 : A4 20매 내외, 요약문 2매(신명조체, 글자크기 11, 줄간격 160)
- 제출서류 : 지원서, 논문 활용 동의서, 재학증명서,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작성방법 : ▶한글 2002이상 버전 사용, 일반 학술논문 작성 원칙에 의함(각주 등)
  ▶표지, 요약문, 본문, 참고자료의 순서로 하나의 파일로 작성할 것
- 접수기한 : 2011년 9월 30일(금)까지
- 접수방법 : ① 제출서류 : 우편 접수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조계종 교육원 학인논문 공모전 담당자(앞)
  ② 논문파일 : 이메일 접수(amita031@buddhism.or.kr)

입상자 발표

2011년 11월 중 조계종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입상자 장학금

- 대 상 300만원(1편)
- 최우수상 200만원(1편)
- 우수상 100만원(2편)
- 장 려 상 50만원(3편)

우수 논문 발표 및 시상식 2011년 12월 중

유의사항

지원서는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하시고 논문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02-2011-1818)

2011년 4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 응